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재선

2023년 8월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남 진 열

유 재 선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유재선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 관 우 ㉠

위 원 김 상 미 ㉠

위 원 남 진 열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3년 8월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Multicultural Receptivity

Yu Jae-Seon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Social Welfare

202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다문화 접촉경험	4
1) 다문화 및 다문화 접촉경험의 개념	4
2) 다문화 접촉경험 구성요소	7
2. 다문화 수용성	9
1)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9
2)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	10
3.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 방법	18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18
2. 연구 모형	19
3. 측정 도구 및 신뢰도	20
1) 다문화 접촉경험	20
2) 다문화 수용성	22
4. 자료 분석 방법	23
IV. 연구 결과	24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4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26
3. 배경 변인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집단 간 차이 분석	28

4. 다문화 수용성의 집단 간 차이 분석	30
1) 연령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0
2)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2
3) 직업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3
4)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4
5) 결혼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5
6) 종교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6
5.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37
6.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0
1)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40
2)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42
3)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	44
4)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6
V. 결론 및 제언	48
1. 연구 결과 요약	48
2. 제언	50
3. 연구의 한계점	51
참고문헌	52
Abstract	61
<부록> 설문지	63

<표 목차>

<표 1> 설문지 수집 현황	18
<표 2> 다문화 접촉경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1
<표 3>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 및 신뢰도	22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5
<표 5>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	27
<표 6> 배경 변인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의 차이	28
<표 7> 연령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1
<표 8>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2
<표 9> 직업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3
<표 10>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4
<표 11> 결혼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5
<표 12> 종교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36
<표 13> 측정변인의 상관 계수	39
<표 14>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41
<표 15>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43
<표 16>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	45
<표 17>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19
-------------------	----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유 재 선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남 진 열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 30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총 36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 된 9부와 미회수된 48부를 제외하고 303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8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접촉경험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학교 교사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교사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단이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요인 8가지 중 해외여행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의 일반적 경향은 30대와 여성, 학교 교사, 대졸(재학 포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0대와 여성, 학교 교사, 대졸(재학 포함)이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변인 중 보편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

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대와 성별, 친구 경험, 여행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여성일수록, 외국인 친구와 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 접촉경험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상과 수준에 적합한 다문화 교육 및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다문화 접촉경험, 다문화 수용성, 제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안전부(2022)가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에 장기체류하거나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536,627명에서 2021년 2,134,569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대비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은 4.1%에 이른다. 이 중 약 52.4%가 다문화 가구원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다문화 가구로 추정되는 가구 수는 총 38만 5천 219가구로 다문화가구 학생도 증가 추이에 있다. 2007년 44,258명에서 2020년 275,990명으로 13년 사이 약 6.2배 증가하였다. 만 0세~만 18세 사이 자녀가 275,990명 중 만 6세 이하가 115,579명으로 전체 자녀 중 약 42%로 향후 다문화가구의 취학 아동 수가 약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결혼, 취업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노윤구 외, 2018). 하지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사회 불안정과 분열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기존의 인종 차별 문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신재주, 2010). 이러한 상황은 순혈주의, 단일민족을 자긍심의 근간으로 삼던 한국인들에게 가치와 인식, 태도에서의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인이 늘 강조해 오던 ‘우리’의 범주에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의 집단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한국인들은 민족적 뿌리를 함께 하는 한국인으로서의 결속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지금에 이르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다른 민족을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큰 것이다(장수지, 2021).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류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의식이 필요하다(장재운 외, 2008). 최근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높지 않으며,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여성가족부, 2021).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그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다문화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을 느끼며, 이주민과의 문화적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로 이어져 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과의 평화로운 공존과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위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배은주 외, 2020).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아동들을 위해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다문화 수용성은 중요하다.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하는 학교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행동과 태도, 가치관은 아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모경환, 2009; 이진선 외, 2019). 따라서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아동이 자신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넓히는데 중요하다(박지연, 2015; 김영교, 2014).

학교 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본 연구(강중훈, 2015; 김경근 외, 2015; 배재현, 2020; 한유경, 2021)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권승, 2009; 김현아, 2013; 지술현 외, 2017; 도현진 외, 2020)에서는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문화 접촉경험이 있다. 다문화 접촉경험이란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을 뜻하며, 해외 거주 및 해외여행, 외국인 친구 혹은 가족의 유무, 미디어 매체접촉 경험들이 이에 포함된다(안상수 외, 2012). 김옥순(2008)과 박윤경(2007)도 다문화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기존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 청소년, 대학생,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을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중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 및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은 다문화 수용성(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접촉경험

1) 다문화 및 다문화 접촉경험의 개념

(1) 다문화

‘다문화’란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윤인진 외, 2011). 다문화주의는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라는 뜻이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격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민족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이다(복지티브이, 2013).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는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대체로 문화적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과 관행이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함승환 외, 2022). 미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은 다양한 인종, 문화공동체가 국가를 이루었고,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는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 수용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비교적 단일한 민족성을 계속 유지해 왔으나 최근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윤인진 2008). Taylor(1992)는 문화적으로 다수인 집단에서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라 정의하였다. 세계화를 통해 민

족과 인종이 이동하고 공존하면서 각 사회는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소수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가 존속되어 공존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 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윤인진 등(2009)은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라고 정리하였다. 즉,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다(신재주, 2010).

(2) 다문화 접촉경험의 개념

급변하는 다문화 시대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가생활의 변화로 인한 해외여행의 증가, 다변화된 대중매체로 인한 다문화의 접근, 한류 열풍으로 인한 유학생 유입 증가 등 어느새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김보영, 2020).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의미 도식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거나,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고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의미 도식을 형성하는 것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로써 각 문화권에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의미 체계와 규칙 체계를 제공하여 상호 간 이해를 돕고 행동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문화란 이미 확정된 사고·행동 체계가 아니라 의사소통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적인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김혜은, 2012).

현대사회는 이동 수단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늘었다. 자연스럽게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 경험은 문화, 인종, 언어, 종교 등에서 본인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

하는 것을 말한다(최희선, 2014). 자신과 다른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신희정, 2018). 이는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간접 체험부터 외국인 친구를 갖거나, 다른 문화에서 온 가족이 있거나, 해외에서 여행이나 거주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경험하는 모든 접촉을 포함한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 외의 일상생활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접촉한 경험(이혜진, 2009)으로 다문화 접촉경험을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 접촉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Allport(1954)의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경험 차이에 따라 가벼운 접촉과 친분, 거주지 접촉, 직업 접촉, 공동의 목표 실현, 자선 접촉으로 구분한다. 가벼운 접촉은 단순한 목격과 같은 피상적 만남이나 수직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만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지식정보가 축적이 되어 형성되는 것을 친분이라 보았다. 거주지 접촉은 동일한 공간 속에서 유사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비슷한 유형으로는 직업이 있다. 직업접촉은 같은 직업군에서 종사하면서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거주지와 직업에서 접촉이 반복되다 보면 공동의 목표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공동의 목표 실현은 하나의 목표와 이익을 향하여 함께 참여하고 협동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자선은 인종이나 문화와 관련하여 보편적 권리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접촉과 관련해 Allport(1954)는 가벼운 접촉과 가까운 만남일수록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쉽게 형성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고, 자선과 가까울수록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다. 즉, 접촉의 빈도와 경험의 질이 다른 문화 및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신희정, 2018 재인용).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이러한 접촉경험은 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Banks, 2008) 서로 다른 문화집단 간 편견을 낮추어 서로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보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다(Dovidio, Eller, Hewstone, 2011).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다양성을 이해하는 가교역할을 한다(Garmon, 2004). 이렇게 타 문화를 접하

면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갈등과 편견, 차별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도 있다고 보았다(윤인진 외, 2011 재인용).

그러나 모든 접촉이 다른 문화를 대하는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편견 감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Allport, 1954). 다른 연구에서도 밀접한 접촉이 아닌 단순한 외국인 만남이나 가벼운 접촉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신희정, 2018). 이처럼 얕은 경험은 타문화와 인종, 종교 등에 대해 오히려 편견을 갖거나 고정관념을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다문화 접촉경험은 외국인에 대한 높은 위협도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김진철 외, 2010).

심규선(2018)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수용적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고, 한수정(2018)은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인식과 태도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의 내용에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 문화의 경험의 질과 정도에 따라 다문화 수용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문화 접촉경험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다문화 접촉경험의 구성요소

다문화 접촉경험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김옥순(2008)의 연구에서는 해외 체류 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을 중요한 두 요인으로 보았으며, Garmon(2004)는 인간의 기질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가 다문화 감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경험적 요소는 문화간 경험, 교육적 경험, 집단 경험 지지를 이야기 하였다. 문화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해 보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회이고, 교육적 경험은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적 경험을 다루고, 집단의 경험 지지는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공동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말한다(이규림 외, 2013). 김수영(2016)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학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였다. 안상수 외(2012)는 외국인 접촉, 외국인 대화 경험, 해외여행 경험, 해외 거주 경험 등으로 접촉경험을 구분하였다. 김수진(2016) 다문화 접촉경험을 가족, 친

구, 생활, 종교, 외국어, 여행, 다문화 관련 행사로 구성요소를 제시하였고, 비슷한 연구인 고경미 외(2017)는 다문화 연수 경험, 다문화 아동 지도 경험, 다문화권 친구 유무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한국인의 다문화적 태도를 연구한 김정근 외(2016)는 접촉경험의 요인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인척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장은화 외(2013)는 외국인 가족이나 친척, 친구 유무와 외국 거주 경험, 미디어 경험, 다문화 교육 경험 등으로 구분하였다.

신희정(2018)은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해외여행, 해외 거주, 외국인 가족 및 친척 여부, 종교, 외국어 경험 등으로 다른 문화권이나 인종의 사람들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해본 모든 경험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한미경(2019)은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지역사회, 교육 현장 경험을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보았다. 김보영(2020)은 직·간접적 접촉 중 직접접촉인 가족 경험, 친구 경험, 지역사회 경험, 직장 경험, 교육 경험, 다문화 교육 수강 경험, 다문화 지도 경험으로 구성요소를 보았다. 심혜란(2021)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자녀 교육 현장, 여행, 외국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접촉경험은 외국인 가족, 외국인 친구, 해외 거주, 외국인 동료, 학교와 회사, 자녀 교육 현장, 해외여행, 외국어 능력 등으로 직·간접적인 모든 접촉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다문화 수용성

1)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로 정부는 이민자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2년 51.17점, 2015년 53.95점, 2018년 52.81점, 2021년 52.27점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5년 상승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이주 배경 집단과의 접촉 관계 축소, 이주 배경 집단과의 관계의 형식성, 다문화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 다문화 활동 위축, 온라인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기회 제한 등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다름에 대한 다양성과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이해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진취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하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성옥, 2015).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정립되지 않아 사전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태도로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상호인정하며 공존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정의하였다(최진경, 2013).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이며, 우리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이며,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와 이주자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박현주 외, 2015).

다문화 수용성을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고(민무숙 외 2011), 윤인진 외(2011)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 하였으며, 황정미 외(2007)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를 다문화 지향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지영(2013)은 다문화 수용성을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진 집단을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정도라 말하며,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존중하는 열린 태도와 통합을 위한 개방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신희정(2018)은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서로의 문화에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며 다양한 문화의 인종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및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정희(2018)도 다양한 문화와 조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위하여 상호 인정하고 협력하며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말하였다. 사회지배 성향이 다문화 수용성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지혜(2022)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집단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다양한 문화집단의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주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서 이를 실천하는 총체적 의미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의는 많은 연구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이라고 정의된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배경의 집단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집단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 가치에 근거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태도를 말한다(안상수 외, 2012).

2)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

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로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개방성, 다문화적 공감, 다문화적 관계 형성 능력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최수안, 2017). 최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구성요소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안상수 외, 2012; 김보영, 2020; 심혜란, 2021). 여성가족부(2022)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차원은 Berry의 문화적응모형(Berry 외, 2002)을 참고하는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수준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다(최만식, 2013). 최희선(2014) 역시도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첫째 구성 요소인 ‘다양성’은 내집단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며, 더 나아가 다른 문화 또는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을 말한다. 다양성 하위 구성요소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가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2).

첫 번째, 문화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민자와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을 측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상호 공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김만하, 2018).

두 번째,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의 기준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 시민 또는 국민됨의 자격 조건을 엄격히 두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두느냐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요소를 국민됨의 핵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이민자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문화 수용성에서 설정한 국민정체성 요소는 생득적 요소,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적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한다(김정희, 2018).

세 번째, 고정관념 및 차별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혹은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된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된다. 편견은 집단 소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한다(김정희, 2018). 이민자는 주류집단과 구분되는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류집단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 수용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문화 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여성가족부, 2022).

둘째, ‘관계성’은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에 연관된 축이다. 다른 인종, 문화집단과 더불어 큰 사회에 참여하고 결합하려는 것에 대한 선호를 말한다(Berry 외, 2002).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인 통합의 개념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완고한 기준을 가지고 이주민에 편파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이 관계성 차원의 핵심요소이다. 관계성 차원에는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한다.

첫 번째, ‘일방적 동화 기대’는 동화주의(Melting-pot)적 관점에서 주류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주류문화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가 아니라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 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한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즉,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melting pot) 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자가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두 번째, ‘거부·회피 정서’는 배경이 다른 문화를 가진 이질적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접촉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활성화하는 개념이다. 출신 지역, 인종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접촉, 일상적인 생활에서 접촉 등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교류행동 의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들과 관계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상호 호혜적이고 적극적인 교류 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 모임이나 친구 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한다(여성가족부, 2022).

셋째, ‘보편성’은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측면으로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 간의 관계뿐 아니라 외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기초로 보편적인 태도를 정립했는지 말한다(최희선, 2014). 경제발전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의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태도의 특징 중 하나인 경제발전 수준, 문화적 가치,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의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영어권 언어 선호, 출신 배경에 따른 업무능력 차별적 평가, 선별적인 친구 관계 형성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두 번째, ‘세계시민행동 의지’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태도와 관련이 있다. 세계시민행동 의지의 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으로 공통된 세계 구성원으로서 빈곤과 기아, 인권 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 지향성 또는 의지를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다문화 접촉에 대한 선행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대부분이 다른 문화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경험하는 효과성과 영향력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주로 Allport(1954)의 접촉 가설을 근거로 한다. 다른 문화와의 직·간접적인 접촉경험을 통해 효과성과 영향력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한미경(2019)은 연구자들의 다문화 집단과 접촉경험을 통해 긍정적 태도 변화가 생겼다고 보았고, 해외여행, 외국인 친구,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만남과 같은 다문화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김경근 외, 2012)고 보았으며, 한수진 외(2012)는 다문화 접촉경험은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문화 다양성 이해에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 문화 다양성 및 자신과 다른 문화를 상대주의적 관점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다문화 접촉경험이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박운경, 2007). 이연선(2014)은 교사의 다문화 관련 경험과 배경은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를 이해하고 관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다문화 접촉경험이 문화적 다양성 및 개인의 인종 정체성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수진, 2016 재인용).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용성 및 교육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문화 접촉경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성향, 2013).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경미 외(2017)는 교사의 다문화 연수와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및 다문화 교육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희선(2014)은 미디어 및 친구를 통한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혜령(2013)은 다문화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수준이 높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다문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욱(2021)은 사회복지사의 복지 태도와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태도와 인권 의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고, 이진선 외(2019)는 다문화가정 아동 등과의 질 좋은 긍정적인 접촉이 많이 쌓여야 다문화 수용성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다문화 실천인력의 다문화 경험과 교육 및 훈련이 다문화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최혜지,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다문화 접촉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태도 및 교육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연구한 윤인진 외(2009)는 우리 국민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유입으로 다른 문화집단 간의 조화와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에 와있다. 그에 따라 다문화 시대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 측정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과 종족 배제주의 척도가 사용되었다(김이선 외, 2007). 한국은 단일민족 정체성이 강해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인종 간 사회적 거리감이나 종족 배제주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어, 이를 보완한 국민정체성과 시터즌십, 보편적 가치척도와 권리수용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었다(황정미 외, 2007). 이후에는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맞춤형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로 발전해 갔다.

김미진(2010)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하여 다문화 수용성 개념을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민무숙(2011)의 한국형 척도개발을 시도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상호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민무숙(20

21)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 ‘다양성’과 ‘관계성’에 안상수 외(2012)는 이중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가함으로써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가 발표되었다.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의 요소로 구분되었으며,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로 구분 되어졌으며,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 의지의 2가지 요소로 구분되었다. 이를 토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관련 요인과의 연관성, 국제지표와의 비교 등을 통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를 발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 및 교육 경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요인으로 한 연구에는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이 있다. 신희정(2018)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고, 양소연(2013)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또래들과의 관계는 아동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는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청년기, 성인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아를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연구(박범주, 2016; 이미실, 2017)와 개인의 태도와 인식이 파급력을 갖는 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 태도에 관한 연구(고경미 외, 2017)를 살펴보면 다양한 변인에 따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으로 연령,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김경근 외, 2015). 연령이 낮은 집단과, 여성이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최희선, 2014), 학력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았다(신희정, 2018).

다문화 접촉경험으로 교사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김보영, 2020), 유아 지도경험이 있는 김수진(2016)과 교사 연수 경험이 있는 김애영(2017)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김영교(2014)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계화 외(2023)는 다문화 역량의 하위요인인 자기 가치, 타인 가치, 다문화 지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접촉경험은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문화가구 자녀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하여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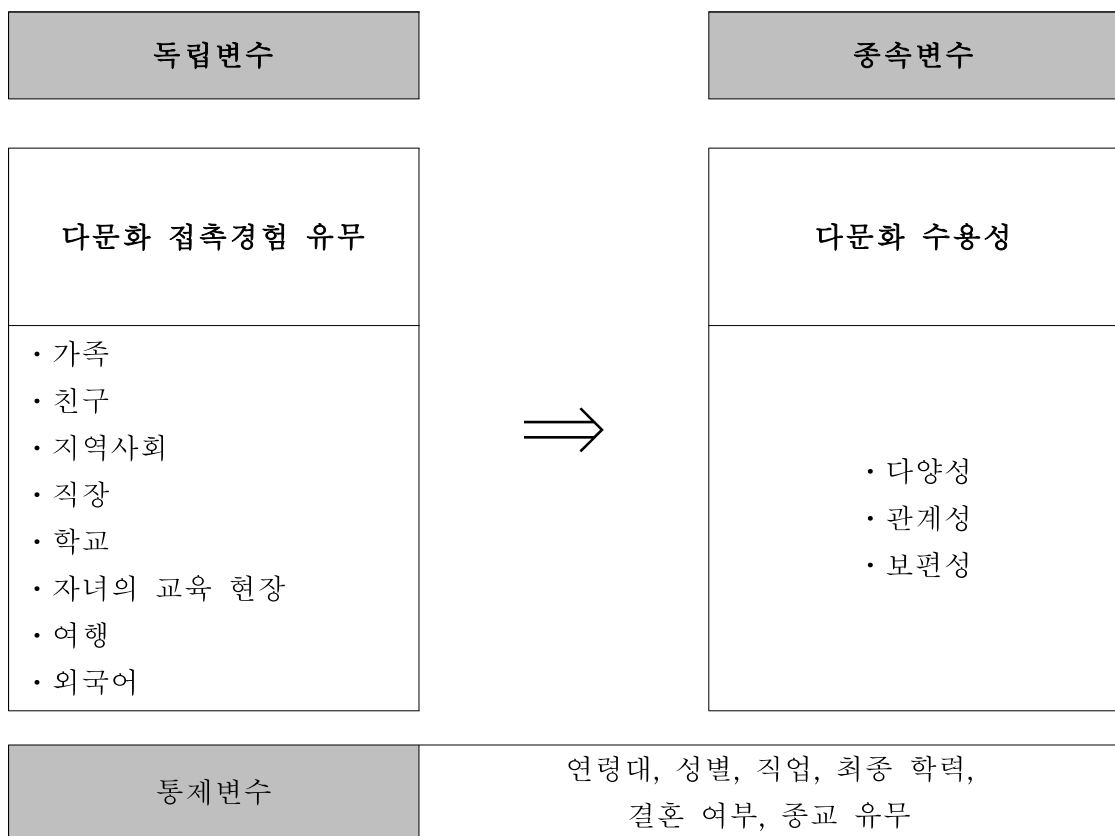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가능 대상자 360명을 비확률표집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각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설문 작성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의 내용과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이 끝난 후에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배포된 총 36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설문지 9부와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48부를 제외(총 57부)하고 303부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표 1> 참조.

<표 1> 설문지 수집 현황

구분	배부	최종	비율
학교 교사	182	142	78%
사회복지 종사자	177	161	91%
합계	360	303	84%

2. 연구 모형

본 연구 모형에서는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변수로,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요인인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자녀의 교육 현장, 여행, 외국어 8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측정 도구 및 신뢰도

1) 다문화 접촉경험

다문화 접촉경험의 척도는 Ward(1996)가 개발한 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CCLEC)를 번안·수정한 신희정(2018)의 측정 도구와 김보영(2020)의 측정 도구를 부모 대상으로 수정한 심혜란(2021)의 측정 도구를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한미경(2019)은 신희정(2018)의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 구성 요소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교육 현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김보영(2020)은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 구성 요소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교육 현장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행과 외국어를 추가로 설정하였으며, 심혜란(2021)은 김보영(2020)의 측정 도구 총 12문항 중 ‘학교 1문항’과 ‘자녀의 교육 현장 2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혜란(2021)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은 각각 1문항씩이며, 학교, 자녀의 교육 현장, 여행, 외국어는 각각 2문항씩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경험 여부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으며, ‘예’=1점, ‘아니오’=0점으로 평정하였다.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화 접촉경험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14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심혜란(2021)의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는 .749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표 2> 다문화 접촉경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내용	문항 수	신뢰도(Cronbach's α)	
			선행연구	본연구
다문화 접촉경험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자녀교육현장*, 여행*, 외국어*	12	.749	.614

*2문항

2)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KMCI)는 민무숙 외(2011)의 척도를 김이선 외(2022)가 개정한 척도이다. 일반인용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CMI; 김이선 외, 2022)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으로서 기존의 다양성과 관계성에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척도의 완결성을 높였다.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6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약간 그렇지 않다, 4점=보통이다, 5점=대체로 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를 통해 평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다양성($\alpha=.918$), 관계성($\alpha=.863$), 보편성($\alpha=.760$)이며 전체 다문화 수용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7로 높게 나타났으며, 김이선 외(2022)의 연구에서도 다양성($\alpha=.86$), 관계성($\alpha=.78$), 보편성($\alpha=.70$)이며 전체 다문화 수용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Cronbach's α)	
			선행연구	본연구
다양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86	.918
관계성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1	.78	.863
보편성	27*, 28*, 29*, 30*, 31, 32, 33, 34, 35	9	.70	.760
	전 체	35	.89	.847

*역채점 문항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의 요인 내 항목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통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제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연령대는 20대 43명(14.2%), 30대 94명(31.0%), 40대 95명(31.4%), 50대 이상 71명(23.4%)이었고, 성별은 남자 96명(31.7%), 여자 207명(68.3%)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교사 144명(47.5%), 사회복지 종사자 159명(52.5%), 최종 학력은 전문대졸(재학 포함) 이하 45명(14.9%), 대졸(재학 포함) 185명(61.0%), 대학원 재학 이상 73명(24.1%)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 110명(36.3%), 기혼 193명(63.7%)였으며, 종교는 종교 있음 145명(47.9%), 없음 158명(5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연령대	20대	43	14.2
	30대	94	31.0
	40대	95	31.4
	50대 이상	71	23.4
성별	남성	96	31.7
	여성	207	68.3
직업	교사	144	47.5
	사회복지 종사자	159	52.5
최종 학력	전문대졸(재학 포함) 이하	45	14.9
	대졸(재학 포함)	185	61.0
	대학원 재학 이상	73	24.1
결혼 여부	미혼	110	36.3
	기혼	193	63.7
종교 유무	종교 있음	145	47.9
	종교 없음	158	52.1
	합 계	303	100.0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한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2문항, 자녀의 교육 현장 2문항, 여행 2문항, 외국어 2문항 총 12개로 분류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문화 접촉경험 '예=1점', '아니오=0점'으로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접촉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접촉경험은 1점 만점에 평균 .37점(SD=.18)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은 가족 .08점(SD=.27), 친구 .37점(SD=.48), 지역사회 .22점(SD=.42), 직장 .25점(SD=.43), 학교 .47점(SD=.37), 자녀의 교육 현장 .23점(SD=.38), 여행 .87점(SD=.29), 외국어 .19점(SD=.26)으로 다문화 접촉경험 중 여행, 학교, 친구 관련 변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변인 중 다양성은 6점 만점에 평균 4.44점(SD=.87), 관계성은 4.33점(SD=.82), 보편성은 4.45점(SD=.71)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 4.41점(SD=.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

(N: 303)

변인	척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편차
독립변인	가족	0.00	1.00	0.08	.27
	친구	0.00	1.00	0.37	.48
	지역사회	0.00	1.00	0.22	.42
	직장	0.00	1.00	0.25	.43
	학교	0.00	1.00	0.47	.37
	자녀의 교육 현장	0.00	1.00	0.23	.38
	여행	0.00	1.00	0.87	.29
	외국어	0.00	1.00	0.19	.26
	다문화 접촉경험	0.00	0.83	0.37	.18
종속변인	다양성	1.40	6.00	4.44	.87
	관계성	1.27	6.00	4.33	.82
	보편성	2.56	6.00	4.45	.71
	다문화 수용성	1.66	6.00	4.41	.73

3. 배경 변인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다문화 접촉경험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t*-검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배경 변인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의 차이

배경 변인	하위 요인	N	M	SD	F / t	사후 분석
연령대	20대	43	.384	.182	1.754	-
	30대	94	.382	.164		-
	40대	95	.384	.186		-
	50대 이상	71	.332	.169		-
성별	남성	96	.344	.168	1.888	-
	여성	207	.385	.178		-
직업	교사	144	.402	.166	-2.885**	-
	사회복지 종사자	159	.344	.180		-
최종 학력	전문대졸(재학 포함)이하 ^a	45	.285	.155	7.622**	a<b<c
	대졸(재학 포함) ^b	185	.378	.176		
	대학원 재학 이상 ^c	73	.410	.171		
결혼 여부	미혼	110	.368	.181	.250	-
	기혼	193	.374	.172		-
종교 유무	종교 있음	145	.372	.167	.081	-
	종교 없음	158	.371	.183		-

p*<.05, *p*<.01, ****p*<.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평균은 20대 평균 .384(SD=.182)점과 40대 평균 .384(SD=.1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평균 .382(SD=.164)점이며, 50대 이상은 평균 .332(SD=.16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평균은 남성이 .344(SD=.168)점, 여성이 .385(SD=.17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평균은 교사가 .402(SD=.166)점, 사회복지 종사자가 .344(SD=.180)점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885, p<.01$).

다음으로 최종 학력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평균은 대학원 재학 이상의 평균이 .410(SD=.1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은 평균 .378(SD=.176)점이며, 전문대졸(재학 포함) 이하의 평균이 .285(SD=.1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7.622, p<.01$).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접촉경험은 대학원 재학 이상이 전문대졸(재학 포함) 이하와 대졸(재학 포함)보다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 여부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평균은 미혼이 .368(SD=.181)점, 기혼은 .374(SD=.172)점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의 평균은 종교 있음이 .372(SD=.167)점, 종교 없음이 .371(SD=.183)점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다문화 접촉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다문화 수용성의 집단 간 차이 분석

1) 연령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령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변인					F	M(SD)	
	20대 ^a (N=43)	30대 ^b (N=94)	40대 ^c (N=95)	50대 이상 ^a (N=71)		사후 분석	
다양성	4.60(.78)	4.66(.87)	4.40(.79)	4.13(.94)	5.780**	a,b>d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4.40(.86)	4.45(.81)	4.33(.73)	4.14(.89)	2.125	-
	보편성	4.45(.73)	4.56(.73)	4.44(.68)	4.33(.69)	1.464	-
다문화 수용성	4.50(.71)	4.57(.73)	4.39(.65)	4.20(.78)	4.141**	b>d	

* $p<.05$, ** $p<.01$, *** $p<.001$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의 연령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하위요인의 평균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F=5.780$, $p<.01$), 다문화 수용성 전체($F=4.141$, $p<.01$)에서 다양성과 수용성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에

서 20대와 30대가 50대 이상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서는 30대가 50대 이상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변인	M(SD)			
	남성 (N=96)	여성 (N=207)	t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4.26(.94)	4.53(.83)	2.392*
	관계성	4.20(.82)	4.40(.81)	2.012*
	보편성	4.27(.66)	4.53(.71)	3.132**
다문화 수용성	4.24(.74)	4.49(.71)	2.709**	

* $p < .05$, ** $p < .01$, *** $p < .001$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하위요인의 평균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t = -2.392$, $p < .05$), 관계성($t = 2.012$, $p < .05$), 보편성($t = 3.132$, $p < .01$), 다문화 수용성 전체($t = 2.709$, $p < .01$)로 나타났다.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수용성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직업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대상자의 직업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직업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변인	교사 (N=144)	사회복지 종사자 (N=159)	M(SD)	
			<i>t</i>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4.56(.83)	4.34(.90)	-2.230*
	관계성	4.37(.82)	4.30(.81)	-.730
	보편성	4.61(.72)	4.31(.66)	-3.787***
다문화 수용성		4.51(.72)	4.32(.73)	-2.336*

* $p < .05$, ** $p < .01$, *** $p < .001$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하위요인의 평균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교사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t = -2.230$, $p < .05$), 보편성($t = -3.787$, $p < .001$), 다문화 수용성 전체($t = -2.336$, $p < .05$)로 다양성과 보편성,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 교사가 사회복지 종사자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대상자의 직업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변인	전문대졸			F	사후 분석	
	(재학 포함)	대졸	대학원			
	이하 (N=45) ^a	(재학 포함) (N=185) ^b	재학 이상 (N=73) ^c			
다양성	4.09(.77)	4.53(.86)	4.44(.91)	4.795**	a<b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4.04(.80)	4.43(.78)	4.28(.88)	4.218*	a<b
	보편성	4.13(.58)	4.50(.72)	4.52(.70)	5.562**	a<b,c
다문화 수용성	4.09(.62)	4.49(.72)	4.41(.76)	5.761**	a<b,c	

* $p<.05$, ** $p<.01$, *** $p<.001$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하위요인의 평균분포를 살펴보면, 다양성, 관계성,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서 대졸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편성은 대학원 재학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F=4.795$, $p<.01$), 관계성($F=4.218$, $p<.05$), 보편성($F=5.562$, $p<.01$), 다문화 수용성 전체($F=5.761$, $p<.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서 조사대상자의 최종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혼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대상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결혼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변인	M(SD)		
	미혼 (N=110)	기혼 (N=193)	<i>t</i>
다양성	4.56(.82)	4.38(.89)	-1.783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4.36(.81)	4.32(.82)	-.384
	보편성 4.50(.74)	4.42(.68)	-.896
다문화 수용성	4.48(.72)	4.37(.73)	-1.256

p*<.05, *p*<.01, ****p*<.001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결혼 여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하위요인의 평균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미혼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 전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종교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종교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변인	종교 있음 (N=145)	종교 없음 (N=158)	M(SD)		
			<i>t</i>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4.34(.86)	4.53(.87)	1.901	
	관계성	4.28(.83)	4.38(.80)	1.005	
	보편성	4.41(.70)	4.49(.71)	.988	
다문화 수용성			4.34(.73)	4.47(.72)	1.577

p*<.05, *p*<.01, ****p*<.001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하위요인의 평균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종교 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 전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문화 접촉경험 하위변인과 다문화 수용성 등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 규명을 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수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으로 연령대, 성별, 직업,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종교 유무의 6개 변수가 있었고, 독립변수인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인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자녀 교육 현장, 여행, 외국어와 독립변수 다문화 접촉경험까지 9가지 변수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의 하위변인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3가지 변수와 다문화 수용성까지 총 19개의 변수가 있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종교 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r=-.176$, $p<.01$), 성별($r=-.157$, $p<.01$)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r=.133$, $p<.05$)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학교 교사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다문화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대,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r=.163$, $p<.01$)과 최종 학력($r=.204$, $p<.01$)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교사와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접촉경험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독립변수인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장과 자녀 교육 현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r=.137$, $p<.05$), 친구($r=.208$, $p<.01$), 지역사회($r=.141$, $p<.05$), 학교($r=.183$, $p<.01$), 여행($r=.214$, $p<.01$), 외국어($r=.187$, $p<.01$)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지인이 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해외 여행 경험과 외국어가 가능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의 최대치가 .939이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VIF)도 10에 가까운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

1)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계수가 0.8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Hair, Anderson, Tatham, Black, 1998).

<표 13> 측정변인의 상관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연령대(1)	1																	
성별(2)	-.046	1																
직업(3)	-.141*	-.009	1															
최종 학력(4)	.130*	.070	.361**	1														
결혼 여부(5)	-.654**	.046	.065	-.113*	1													
종교 유무(6)	.248**	-.141*	-.224**	.017	-.187**	1												
가족(7)	.008	-.121*	-.108	-.103	-.018	.086	1											
친구(8)	.016	-.037	-.140*	.007	-.024	.129*	.180**	1										
지역사회(9)	-.108	.042	-.005	.022	.137*	.039	.164**	.194**	1									
직장(10)	-.124*	.020	.082	.050	.124*	-.105	.087	.274**	.370**	1								
학교(11)	-.209**	-.087	.344**	.167**	.159**	-.090	.059	.187**	.252**	.269**	1							
자녀교육현장(12)	.173**	-.053	-.061	.133*	-.334**	.065	-.019	.097	.035	-.029	.005	1						
여행(13)	.015	-.098	.210**	.262**	-.113*	.062	.022	.085	.042	.051	.199**	.063	1					
외국어(14)	-.189**	-.082	.156**	.093	.150**	-.125*	.017	.257**	.312**	.320**	.235**	.029	.169**	1				
다문화접촉경험(15)	-.095	-.108	.163**	.204**	-.015	.005	.244**	.536**	.530**	.530**	.619**	.411**	.448**	.577**	1			
다양성(16)	-.213**	-.143*	.127*	.097	.100	-.109	.113*	.179**	.119*	.093	.197**	.093	.241**	.184**	.312**	1		
관계성(17)	-.126*	-.115*	.042	.060	.022	-.058	.127*	.234**	.119*	.058	.116*	.104	.147*	.137*	.258**	.770**	1	
보편성(18)	-.090	-.173**	.214**	.148*	.053	-.057	.138*	.135*	.150**	.133*	.163**	.058	.155**	.179**	.271**	.618**	.639**	1
다문화 수용성(19)	-.176**	-.157**	.133*	.108	.072	-.091	.137*	.208**	.141*	.101	.183**	.099	.214**	.187**	.319**	.939**	.908**	.792**

*p<.05, **p<.01, ***p<.001

* 연령대(20대=1), 성별(남성=1), 직업(교사=1), 최종 학력(전문대졸 이하=1), 결혼 여부(미혼=1), 종교 유무(종교 있음=1), 가족(있음=1), 친구(있음=1), 지역사회(있음=1), 직장(있음=1), 학교(있음=1), 자녀의 교육 현장(있음=1), 여행(있음=1), 외국어(있음=1), 다문화접촉경험(있음=1), 다양성(전혀 그렇지 않다=1), 관계성=(전혀 그렇지 않다=1), 보편성=(전혀 그렇지 않다=1), 수용성=(전혀 그렇지 않다=1)

6.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1)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4>과 같다.

Model 1~2는 연구 개념들의 평균값을 투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odel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5.301$,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7%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대($\beta=-.253$, $p=0.001$), 성별($\beta=-.171$, $p=0.003$), 최종 학력($\beta=.126$, $p=0.040$)이 다문화 다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732$, $p=0.000$). 설명력은 18.7%로 Model 1의 9.7%에 비해 9.0%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beta=-.202$, $p=0.006$), 성별($\beta=-.130$, $p=0.019$)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Model 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최종 학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 중 친구($\beta=.143$, $p=0.017$)와 여행($\beta=.185$, $p=0.001$)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 경험과 여행 경험이 높을수록 다문화 다양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상 수	4.836		18.423***	4.148		14.272***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대	-.222	-.253	-3.378**	-.177	-.202	-2.752**
	성별	-.320	-.171	-3.049**	-.244	-.130	-2.350*
	직업	.054	.031	.501	.058	.033	.519
	최종 학력	.177	.126	.2.066*	.088	.063	1.030
	결혼 여부	-.108	-.060	-.820	.007	.004	.054
	종교 유무	-.134	-.077	-1.302	-.197	-.113	-1.950
	다문화 접촉 경험	가족			.269	.084	1.503
친구				.258	.143	2.397*	
지역사회				.105	.050	.823	
직장				-.073	-.036	-.593	
학교				.078	.033	.529	
자녀의 교육 현장				.218	.096	1.661	
여행				.562	.185	3.211**	
외국어				.082	.025	.405	
R ² (adjust R ²)		.097(.079)			.187(.147)		
F(p)		5.301***			4.732***		
Durbin-Watson			1.787				

*p<.05, **p<.01, ***p<.001

※ 더미변수 : 1)성별(남성=1), 2)직업(교사=1), 3)결혼 여부(미혼=1), 4)종교 유무(종교 있음=1)

2)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Model 1~2는 연구 개념들의 평균값을 투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odel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2.386$, $p=.029$),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대($\beta=-.200$, $p=0.010$), 성별($\beta=-.134$, $p=0.021$)이 다문화 관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088$, $p=0.000$). 설명력은 13.1%로 Model 1의 4.6%에 비해 8.5%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beta=-.166$, $p=0.030$)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Model 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 중 친구($\beta=.216$, $p=0.001$)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 경험이 높을수록 다문화 관계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상 수	4.705		18.594***	4.265		15.131***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대	-.165	-.200	-2.598*	-.136	-.166	-2.185*
	성별	-.235	-.134	-2.329*	-.189	-.108	-1.884
	직업	-.045	-.027	-.429	.018	.011	.169
	최종 학력	.126	.095	1.523	.072	.054	.867
	결혼 여부	-.170	-.100	-1.331	-.088	-.052	-.669
	종교 유무	-.088	-.054	-.888	-.157	-.096	-1.598
	가족				.250	.083	1.438
다문화 접촉 경험	친구			.365	.216	3.495**	
	지역사회			.150	.077	1.214	
	직장			-.123	-.065	-1.028	
	학교			-.023	-.010	-.162	
	자녀의 교육 현장			.169	.079	1.330	
	여행			.279	.098	1.642	
	외국어			.030	.010	.152	
R ² (adjust R ²)		.046(.027)			.131(.088)		
F(p)		2.386*			3.088***		
Durbin-Watson			1.862				

*p<.05, **p<.01, ***p<.001

※ 더미변수 : 1)성별(남성=1), 2)직업(교사=1), 3)결혼 여부(미혼=1), 4)종교 유무(종교 있음=1)

3)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Model 1~2는 연구 개념들의 평균값을 투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odel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976$,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2%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beta=-.188$, $p=0.001$), 직업($\beta=.151$, $p=0.016$)이 다문화 보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667$, $p=0.000$). 설명력은 15.1%로 Model 1의 9.2%에 비해 5.9%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beta=-.165$, $p=0.004$), 직업($\beta=.176$, $p=0.008$)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 중 가족($\beta=.117$, $p=0.041$)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경험이 높을수록 다문화 보편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보편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상 수	4.328		20.277***	4.029		16.736***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대	-.058	-.081	-1.081	-.036	-.051	-.676
	성별	-.285	-.188	-3.337**	-.250	-.165	-2.909**
	직업	.213	.151	2.429*	.249	.176	2.684**
	최종 학력	.135	.118	1.936	.104	.091	1.467
	결혼 여부	.009	.005	.084	.042	.029	.378
	종교 유무	-.043	-.030	-.512	-.075	-.053	-.896
다문화 접촉 경험	가족			.305	.117	2.058*	
	친구			.147	.101	1.646	
	지역사회			.154	.091	1.456	
	직장			.037	.023	.363	
	학교			-.047	-.024	-.385	
	자녀의 교육 현장			.101	.055	.932	
	여행			.158	.064	1.086	
	외국어			.105	.039	.626	
	R ² (adjust R ²)		.092(.073)		.151(.110)		
F(p)		4.976***		3.667***			
Durbin-Watson			1.940				

*p<.05, **p<.01, ***p<.001

※ 더미변수 : 1)성별(남성=1), 2)직업(교사=1), 3)결혼 여부(미혼=1), 4)종교 유무(종교 있음=1)

4)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Model 1~2는 연구 개념들의 평균값을 투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odel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972$,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9%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대($\beta=-.221$, $p=0.004$), 성별($\beta=-.182$, $p=0.001$), 최종 학력($\beta=.128$, $p=0.038$)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604$, $p=0.000$). 설명력은 18.3%로 Model 1의 8.9%에 비해 9.4%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beta=-.175$, $p=0.018$), 성별($\beta=-.146$, $p=0.009$)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Model 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최종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 중 친구($\beta=.175$, $p=0.004$)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 경험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상 수	4.644		21.174***	4.154		17.070***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대	-.162	-.221	-2.932**	-.128	-.175	-2.376*
	성별	-.284	-.182	-3.229**	-.228	-.146	-2.628**
	직업	.064	.044	.706	.095	.065	1.010
	최종 학력	.150	.128	2.087*	.087	.074	1.216
	결혼 여부	-.097	-.065	-.878	-.014	-.009	-.120
	종교 유무	-.096	-.066	-1.113	-.153	-.105	-1.808
	가족				.272	.101	1.816
다문화 접촉 경험	친구			.263	.175	2.918**	
	지역사회			.131	.076	1.233	
	직장			-.060	-.036	-.585	
	학교			.014	.007	.114	
	자녀의 교육 현장			.173	.091	1.572	
	여행			.369	.145	2.517*	
	외국어			.072	.026	.422	
R ² (adjust R ²)		.089(.070)			.183(.143)		
F(p)		4.792***			4.604***		
Durbin-Watson			1.832				

*p<.05, **p<.01, ***p<.001

※ 더미변수 : 1)성별(남성=1), 2)직업(교사=1), 3)결혼 여부(미혼=1), 4)종교 유무(종교 있음=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의 유형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을 살펴보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에 주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 303명으로, 다문화 접촉경험 연구 도구와 다문화 수용성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결과는 SPSS 28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의 높고 낮음을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대, 성별, 직업,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종교 유무 중, 직업에서는 학교 교사와 최종 학력에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교사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최종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은 1점 만점에 평균 0.37점으로 평균 이하로 나타나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자녀의 교육 현장, 여행, 외국어 중 여행이 평균 0.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7가

지 요인은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나,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행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해외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접촉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6점 만점에 4.41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연령대는 30대, 성별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직업은 학교 교사, 최종 학력은 대졸(재학 포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와 종교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 요소 중 보편성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직업의 학교 교사는 이중적 평가로 다문화 문화권 출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계시민행동 의지인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양성 측면에서는 연령대, 친구, 여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고, 외국인 친구가 있으며, 해외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모두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이민자와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부정적 고정관념의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한 국가의 국민됨을 받아들이는 경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성 측면에서는 연령대와 친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고 외국인 친구가 있을수록 다른 인종, 문화집단과 더불어 큰 사회에 참여하고 결합하여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통합의 개념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가지 차원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보편성 측면에서는 성별과 직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학교 교사가 경제발전 수준, 문화적 가치, 차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의 이중적 잣대로 대하는 경향성에 관대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 전체를 살펴보면, 연령대와 성별, 친구, 여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리고 여성일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고 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내집단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

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며, 더 나아가 다른 문화 또는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다문화 수용성 전체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다문화 접촉경험(가족, 친구, 지역사회, 직장, 학교, 자녀의 교육 현장, 여행, 외국어)을 고려하였으나, 그 외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Allport(1954)는 접촉이론에서 효과적으로 접촉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장기적 긴밀한 접촉과 집단 간 구성원들의 상호 보완적 의존 관계를 이야기하였다(Allport 외, 1993). 다문화사회 진전으로 늘어나게 될 이민자와 가깝게 지내는 집단이 이민자와 긴밀한 접촉과 상호보완적 의존 관계를 가지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접촉경험의 직접 접촉 요소인 8가지 하위요인뿐만 아니라 간접접촉요인인 미디어, 사회적 자본, 사회지배 성향 등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은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접촉경험의 하위변인 중 친구 경험과 여행 경험이 있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교육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상과 수준에 적합한 다문화 교육 및 인권 관련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강화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 및 다문화 수용성의 일반적 경향 및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가능한 요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 표집을 제주지역의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로 한정하여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본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 접촉경험 변인들이 다문화 수용성 수준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변수들에 대해 횡단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체계적 종단조사를 통하여 연속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의 방어적인 태도와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민감한 설문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끔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면접과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중훈 (2015). “초등교사의 문화간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교원학습문화 및 다문화 교육 역량과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경미·최혜윤 (2017).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경험과 인식 및 수용성이 다문화 교육 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352-277.
- 국가통계포털 (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2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통계.
- 권승 (2009).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9(1): 353-378.
- 금혜령 (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적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근·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근·이지형·이지혜 (2015).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 수준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연구 25(1): 1-28.
- 김경근·연보라·김재휘 (2015). “교사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2(1): 309-338.
- 김만하 (2018). “군 간부의 다문화 교육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미진·김경은 (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다문화교육학회 3: 12-14.

- 김보영 (2020). “보육교사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교육 역량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16).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9(2): 201-229.
- 김수진 (2016). “유아교사의 다문화 관련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교육 역량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향 (2015). “유아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와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영 (2017). “유아교사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 다문화 교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교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90(9): 117-124.
- 김옥순 (2008). “해외 체류 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에 따른 문화 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5(1): 45-67.
- 김용신 (2008). “초등사회과 교육 과정의 다문화 개념 분석: 2007개정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적용 관점에서” 사회과 교육 47(2): 5-22.
- 김옥 (2021). “사회복지사의 복지 태도가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과실현 7(2): 71-109.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1): 2-225.
- 김정근·김재휘 (2016). “한국인의 다문화적 태도: 상대적 수준, 영향요인 및 과제” 한국교육학연구 22(1): 283-310.
- 김정희 (2018). “군 간부의 다문화 교육 경험과 인권 감수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22). “매개된 조절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한 사회지배 성향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철·장봉석 (2010). “초등 예비 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2(3): 39-60.

- 김현아 (2013).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상담자 자질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1:717-737.
- 김현아 (2015). “이념 성향과 인권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 (2012). “다문화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노성향 (2013). “예비보육 교사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교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교육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3: 81-95.
- 노윤구·이외선 (2018).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과 문화적 공감이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합학습지 16(11): 373-381
- 도현진·김병우·노근태·김신애·천문권·박진희 (2020). “사회복지관에서 바라본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상담학외 4(1): 51-73.
- 류종열 (1997). “가정환경 요인이 타문화에 대한 능력에 미치는 요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모경환·최충옥·김명정·임정수 역 (2008). 다문화 교육 입문.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모경환 (2009). “다문화 교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245-270.
- 문재영·전서영 (2022). “교사의 인식 및 태도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8(2): 75-85.
-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1).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 개발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민무숙 (201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51.
- 박범주 (2016).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26.

- 박소환 (2013). 07. 11. “다문화란 과연 무엇인가?”. 복지티브이. <http://www.wbcb.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2>.
- 박윤경 (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초등 예비 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147-183.
- 박지연 (2015). “유아 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옥 (2019). “신임 경찰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4(2): 85-114.
- 박현주·성정화·손혜란·이민영·조현민 (2015).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7: 92-117.
- 배은주·장소현 (2020). “외국이주민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위협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생명연구 55: 51-77.
- 배재현 (2020). “초등교사의 국가 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 성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설은정 (2011).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주 (2010).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7(3): 5-37.
- 신희정 (2018). “유치원교사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란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다문화 접촉경험과 다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규선 (2018).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신뢰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상수 (2012). “다문화 수용성과 젠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5: 42-52.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안수라·노윤구 (2020).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인권 감수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 미치는 영향”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5(1): 30-36.
- 양계민 (2009a).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7-59.
- 양계민 (2009b).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소연 (2013). “일반가정 초등학교 고학년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아동학회지 22(4): 171-185.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유봉애 (2012).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 사회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579-591.
-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143-192.
- 윤인진 (2015). “한국인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9-110.
- 이계화·김정미 (2023). “예비사회복지사의 인권 태도, 다문화 역량,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187-204.
- 이규림·김영옥 (2013). “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교수 효능감 및 유아 다문화 인식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299-318.
- 이명진·최유정·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미실 (2017). “지역사회 외국인 교사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선 (2014). “유아교사와 희망유아교사의 다문화적 경험에 따른 다문화 교육의 의미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8(2): 247-267.
- 이원영 역 (1993). 편견의 심리.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 서울: 성원사.
- 이자형·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 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2(3): 1-192.
- 이정아 (2013). 유아교육기관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3). “자아존중감, 외모 비교, 미디어 관심이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태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3): 1-17.
- 이진선·민선옥·김재남·강영숙 (201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19(10): 377-380.
- 이형하·박상희·송선화·김정호·김훈희·권충훈·최희철 (2015).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이해” 도서출판공동체.
- 이혜경 (2009). “한국 이민정책사” IOM이민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NO. 2010-7.
- 이혜진 (2009).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지 (2021).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한국사회복지연구 70(1): 5-27.
- 장은화·어주경 (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3): 289-305.
- 장재윤·권성우 (2008). “다문화주의와 창의성: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한국심리학회 1: 53-81.
- 전광현 (2004).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4: 19-51.
- 전영자·전예화 (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정석원 (2014).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이경림·이정은 (20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31: 205-234.
- 지술현 (2011). “학부모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초등학교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술현·임안나 (2017)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글로벌문화학회 8(2): 1-21.
- 지은주 (2011). “아동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문화간 감수성 및 부모 고정관념에 아동의 다문화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만식 (2013).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경 (2013).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호 (2010). “음악대학원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음악 선호도와 의 관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2011). “다문화 실천인력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사회사업 37(4): 405-439.
- 최희선 (2014).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장영인 (2004). “지역사회 아동복지관 설립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4: 75-101.
- 한미경 (2019). “유아교사의 다문화 접촉경험, 사회적 편견,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교육 실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양육 실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021-1042.
- 한수진·정진경 (2012).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 간 감수성의 관계” 아동과 권리 16(1): 173-194.
- 함승환·이승현·이성호 (2022).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재고찰: 다문화 교육 개념의 지형” 한국이민정책학보 5(1): 1-17.
- 행정안전부 (202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세종: 행정안전부.

- 현영권 (2018). “대학생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독서치료학회 10(1): 45-65.
- 한유경 (2021). “초·중등 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문화 사회연구 14(2): 219-249.
- 황정미·김인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2): 2-229.
- 황정미·김이선·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1): 2-225.
- 현영권 (2016). “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영권 (2018). “대학생의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의 조절효과” 독서치료연구 10(1): 15-65.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Addison-Wesley.
- Allport and Ross (1993).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Allport-Ross I/E Scales in a Religiously Heterogeneous Samp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of Religion 32(2): 284-290.
- Banks, J. A (2008).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NewYork and London: Rourledge.
- Berry, J. Poortinga, Y and Sergal, M. and Dasen, P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ven and Mark J. Miller (1998)(2nd. ed.).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Chen, G M, and Starosta. W. J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Human Communication 1: 1-16.
- Council of Europe (2009). “European journal of health law” 17(2):205-210.
- Dovidio, J. F. and Eller, A. and Hewstone, M (2011).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rough direct, extended and other forms of indirect” Group proc

- 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14(2): 147-160.
- Garmon, M. A (2004). "Changing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beliefs about diversity"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5(3): 201-213.
- Kiyak, H. Asumen. Kevan H. Namazi, and Eva F. Kahana (1978). "Job Commitment and Turnover among Women Working in Facilities Serving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19(2): 223-246.
- Mcmanus, P. and T. Diprete (2000). "Market, Family, and State Sources of Income Instabilit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Research* 29: 405-440.
- Reid, P. A (2010). "The role of emotional abilities in the development of cross-cultural competence and their impact on cross-cultural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rder No. 3407246)"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Global (305234532).
- Sercu, L (2004). "Assessing inter cultural competence: A framework for systematic test development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beyond" *Intercultural Education* 15(1): 73-90.
- Sherman, T. J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supervision,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multicultural self-efficacy and the effect of previous supervisors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upervision,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multicultural self-efficacy (Order No. 3475667)"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Global (893132017).
- Taylor, C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ited by Amy Gutman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rd, J. M (1996).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s Cross-Cultural Experiences with their Belief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Wei-Wen Chang and Yu-Hsi Yuan and Ya-Ting Chuang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2): 268-273.

<Abstract>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Multicultural Receptivity

Yu Jae-Se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of school teachers and social workers in Jeju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groups. To this end, from May 22, 2023 to May 31, 2023,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for 303 teachers and social welfare workers working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social welfare-related institu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mong the total of 360 questionnaires distributed, 303 questionnaires were used, excluding 9 unfaithful responses and 48 uncollected questionnaire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8.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group with school teachers

and graduate students or high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eneral trend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nd these results mean that the level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was relatively high for school teachers and the group with graduate students or higher. . In addition, among the eight sub-factor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verseas travel experi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ore overseas travel experiences, the higher the level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The general trend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omen in their 30s, school teachers, and college graduates (including attending school), which means that 30s and women, school teachers, and college graduates (including attending school) had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means high. Among the sub-variabl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universal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and it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measuring the degre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variable that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Looking at the effect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ge, gender, friend experience, and travel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effect. I was able to ascertain what was going 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a priority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experiencing multicultural contac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chool teachers and social welfare workers in Jeju. The level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can be improved by implementing appropriat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ights related edu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Jeju**

<부 록>

설 문 지

ID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접촉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된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이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선생님들의 솔직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남진열
연구자 유재선

※ 본 페이지는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직업은?

- ① 교사 ② 사회복지 종사자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재학 포함) ③ 대졸(재학 포함)
④ 대학원 재학 이상

5. 귀하의 결혼 여부는?

- ① 미혼 ② 기혼

6.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음

문1) 다문화 접촉경험

다음 문항은 귀하의 다문화 접촉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 경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접촉경험		예	아니오
가족	1. 우리 가족 중에는 다른 인종이나 타 문화권의 사람이 있다.		
친구	2.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 중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지역 사회	3. 다른 국가나 다양한 문화권이 섞인 지역에서 살아봤거나 현재 살고 있다.		
직장	4.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의 직장동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한 적이 있다.		
학교	5.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의 사람과 함께 교육받은 적이 있다.		
	6. 학교 또는 회사에서 다문화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다.		
자녀의 교육 현장	7.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권 출신인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채용 한 적이 있다.		
	8.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권 출신인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귀하의 자녀와 함께 교육받은 적이 있다.		
여행	9. 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10. 방문한 나라가 2개국 이상이다.		
외국어	11.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가 1개 있다.		
	12.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가 2개 이상이다.		

문2) 다문화수용성

다음은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점수에 체크(√) 표시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1	2	3	4	5	6
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3.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1	2	3	4	5	6
4.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1	2	3	4	5	6
5.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	3	4	5	6
6.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	3	4	5	6
7.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1	2	3	4	5	6
8.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1	2	3	4	5	6
9.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1	2	3	4	5	6
10.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1	2	3	4	5	6

질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1	2	3	4	5	6
12.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1	2	3	4	5	6
13.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1	2	3	4	5	6
14.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1	2	3	4	5	6
15.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1	2	3	4	5	6
16.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6
17.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1	2	3	4	5	6
18.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6
19.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1	2	3	4	5	6
20.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1	2	3	4	5	6
21.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1	2	3	4	5	6
22.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1	2	3	4	5	6
23.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1	2	3	4	5	6

질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1	2	3	4	5	6
25.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1	2	3	4	5	6
26.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 하겠다.	1	2	3	4	5	6
27.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28.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1	2	3	4	5	6
29.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6
30.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1	2	3	4	5	6
31.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1	2	3	4	5	6
32.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1	2	3	4	5	6
33.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1	2	3	4	5	6
34.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1	2	3	4	5	6
35.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1	2	3	4	5	6